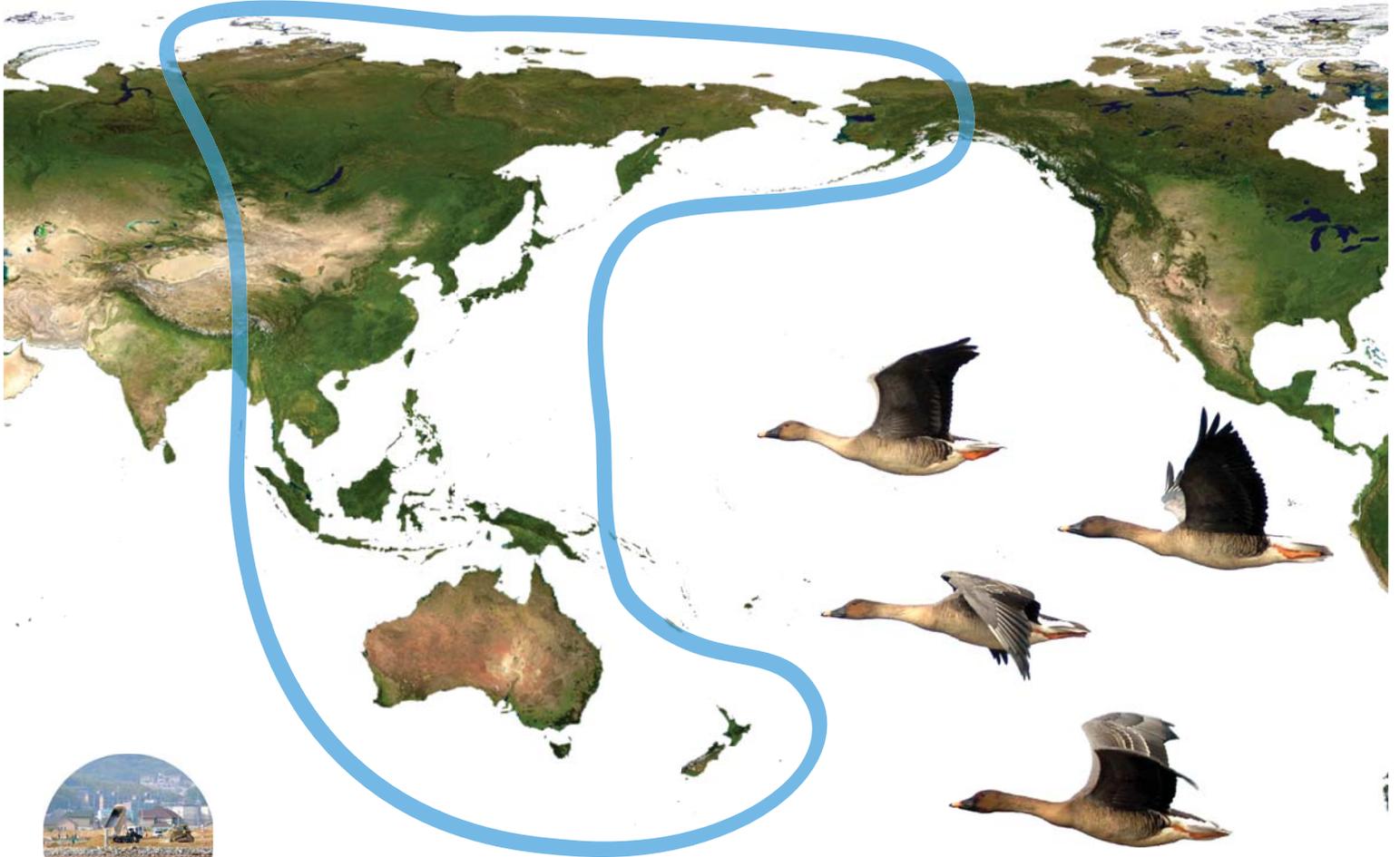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상의 이동성 물새가 처한 위협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 Threats to migratory waterbirds



갈 곳을 잃은 철새: 서식지의 소실은 이동성 물새를 전멸시키는 주요 원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상에 있는 오늘날 인구는 전세계 약70억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곳에 서식하는 이동성 물새들은 심각한 개발 압력에 의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있습니다. 매립과 같은 막대한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조간대 서식지간의 이동경로를 파괴하는 행위나 국제중요서식처에서 일어나는 개발들은 도요물떼새들의 개체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정 종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멸종 직전까지도 몰아갑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동성 물새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담수성 서식지로의 변화입니다. 농업 확대와 댐의 증설, 인공적으로 수로를 습지로부터 농경지나 도심으로 연결하면서 이동성 물새들의 서식지는 담수화 되었습니다.

이동성 물새들이 매년 번식지와 월동지로 이동하는 지리적 경로를 '철새이동경로'라고 하는데 EAAF는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주요 철새이동경로 중 하나로서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알래스카 지역으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22개국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EAAF에는 250개 이상의 개체군에서 유래된 도요물떼새류(Shorebirds), 오리기러기과(Anatidae), 두루미류(Cranes), 바닷새류(Seabirds)를 포함하여 현재 5천만 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은 2006년 11월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 및 그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활동 보존을 위해 구속적이지 않는 자발적인 국제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